

공천 심사 이틀째 중단... 내홍 심화되는 민주

강철규 “최고위 사과 안하면 심사 못해”

한광옥·김덕규 등
舊민주계 반발 확산
무소속 출마 불사



공천심사를 거부한 민주통합당 강철규 공심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도부가 처음에는 국민을 무겁게 생각했다”며 “그러나 공천 작업이 중단으로 가며 국민은 단전에 두고 각자의 이익이나 당선에 연연해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통합당이 4·11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강철규 공천심사위원장이 공천심사를 잠정 중단하며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는가 하면 구(舊) 민주계 출신 원로들은 이번 공천을 “동고동계 죽이기”로 규정, 탈당에 무소속 출마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공심위와 지도부 갈등=강 공심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초심을 잃고 있다”며 당 지도부를 정면 겨냥했다. 그는 “지도부가 처음에는 국민을 무겁게 생각했다”며 “그러나 공천 작업이 중단으로 가며 국민은 단전에 두고 각자의 이익이나 당선에 연연해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공심위의 공천심사 내용 일부를 보류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천심사를 이틀째 중단하고 있다.

그는 또 이날 공천심사 재개를 하기 위해선 “공천심사 기자회견 취소 사태와 그동안 당 지도부의 운영에 대해 사과 등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명숙 대표는 이날 강 위원장과 오찬회동을 갖고 지도부의 공천개입 논란 등으로 발생한 공천심사 중단 사태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강 위원장의 지적에 “강 위원장의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심위의 지적을 수용한다.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또 조속한 공천심사 재개를 당부했지만 강 위원장은 “마음의 평정을 찾는 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심사 재개 시

점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구(舊)민주계 반발 확산=전날 공천에서 탈락한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관악갑)와 김덕규 전 국회부의장(중랑을)은 심사결과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이번 공천은 친노(친노무연)세력에 의한 동고동계 죽이기”라며 2일 오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 전 부의장도 트위터에 “당신네의 할랑 미달 심사로 60년 민주당의 역사가 풍전등화에 있다”며 “지금까지 지켜온 내 정치 역경과 양

심, 신념이 과연 옳았는지 지역구민과 함께 고민하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무소속 출마 방침을 시사했다.

이들은 구 민주계 출신 인사들의 중심으로 ‘민주동우회’라는 이름의 무소속 벨트를 만들어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민주동우회 구성과 관련한 제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그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탈당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인사 민주 비례대표 몇명이나?

민주통합당이 오는 5일까지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기로 하면서 지역구 경선 경쟁에 이어 비례대표 순번 확보 경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1일 박지원 최고위원은 “어제 심야 최고위원회의 논의에서 오는 5일까지 비례대표 공심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공모와 예비 후보들에 대한 평가단의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비례대표가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비례대표 선정은 밀실

에서 진행됐던 과거와는 달리 공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상향한 경쟁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공개적으로 선정하는 모양새를 취하겠지만 내부의 역학구도 등을 감안하면 결국 계파 간의 ‘나뉘먹기’가 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명숙 대표의 비례대표 진출 여부도 관심사다. 하지만 비례대표에 진출한다면 총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20번 이후의 후순위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례대표에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가 얼마나 진출할지도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여성 공천이 여의치 않을 경우, 비례대표 선정에서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호남 정치권이 민주통합당의 변방으로 밀리면서 광주·전남지역 인사들의 비례대표 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5일까지 공심위 구성 앞 순번 확보 경쟁 돌입

있다.

한편, 야권연대는 통합진보당과의 협상 결렬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구에서 1곳을 양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순번은 민주노동당 현역 국회의원이 있어 야권연대 지역으로 선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광주에서 1곳을 양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략공천지 된 광주 동구, 그럼 누가

천정배 등 거론 인사들 한사코 손사래

민주통합당이 광주 동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확정한 가운데 정천정배 등 거론 인사들 한사코 손사래

또한, 목포가 고향인 김학재 의원은 “동구로의 출마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 할 생각도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장하진 전 장관은 “이미 서구 갑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며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이 이뤄지더라도 서구 갑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구로의 ‘전략공천설’에 대해 터부지우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광주 동구의 전략공천 문제와 관련, 영입 카드가 마땅치 않은데다 선불리 전략공천을 결정했다는 동구를 넘어 광주 전체의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예비 후보들 가운데 최종 후보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박주선 의원이 아직 거취를 정리하지 않은데다 영입 카드도 마땅치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선거인단 불법 모집 진상조사는 여론 무마용?

조사단, 복음, 니주, 고흥 등 예비후보 연관성 못 찾아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불·탈법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결과 모두 33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20건이 선거인단 불법 모집 의혹에 대한 제보였으며, 7건이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지역에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선거인단 불법 모집 의혹이 불거진 광주·전남·전북 일부 선거구에 대해 지난달 29일 진상조사단을 파견,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사법권이 없는 조사단 특성상 대부분 특정 예비후보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는 등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실상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중앙당 당직자 2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지난달 29일부터 선거인단 불법 모집 의혹이 제기된 경찰이 수사중인 광주 북구 갑과 북구 을, 나주와 고흥 등에 파견했다.

반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첫 대리등록 의혹으로 경찰에 적발된 장성의 경우 특정 예비후보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다. 경찰이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함에 따라 이번 조사 대상지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불법 모집 의혹과 연관된 예비후보 측과 연루자들을 불러 면담조사를 벌이는 한편 불법 여부를 조사중인 경찰서 및 선관위 등을 방문해 불법 모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사 무실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선거인단 모집 의혹이 제기된 나주에서도 특정 예비후보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피리자르기를 하면 특정 예비후보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선거인단 등록 전 명단을 취합한 의혹이 접수된 고흥의 경우도 조사결과 “선거인단 등록 전 명단 취합은 불법이 아니고, 이후 더 이상 행위가

진행되지 않고 멈춰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의 병원진료기록부를 이용해 선거인단 모집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북을 예비후보 측에 대한 조사에서도 별다른 위반내용을 찾지 못했다.

장예인 단체 주소록을 이용해 대리등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북갑 모 예비후보 측에 대한 조사는 1일 밤늦게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2일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해 공명선거분과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정해준대로 하십시오

새로운 농협

농업·농촌·농업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주는 판매농협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안전한 우리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건강증진과 물가안정을 이루겠습니다.



2배의 희망

국가경제발전의 큰 기둥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업인과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농협금융이 되겠습니다. 한국경제의 미래와 함께하는 글로벌 협동조합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새농협 출범기념 사은행사

농협 임직원은 농업인이 행복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을 향해 힘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경제부문 이벤트】

EVENT 1: 새농협! 새출발! '우리 농산물 할인대잔치' 3.1(목) - 3.11(일), 전국 하나로클럽 55개소
▶ 입장금액 이상 구매고객 사은품 증정

EVENT 2: 농협 인터넷쇼핑몰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3.1(목) - 3.31(토), www.nhshopping.co.kr
▶ LG 시네마3D TV 등 다양한 경품이 쏟아집니다.

【금융부문 이벤트】

EVENT 1: 농협은행 '새출발! 행복 페스티벌' ▶ 영업점 및 전자금융 이용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경품 증정
▶ 여행상품권(유평 등) 200명, 스마트TV, 태블릿PC, 농협쌀10kg 5,000명 등
▶ 3.2(금)~3.24(토)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 참조

EVENT 2: 농협금융 출범 기념 복합 신상품 출시

▶ 혜택도 듬뿍! 사랑도 듬뿍! NH농협은행 '행복채움 New Harmony'팩, ▶ 카드로 은행까지 채우다! NH농협카드 '채움 NewHave'카드, ▶ 수수료 혜택도 은행 우대서비스를 동시에! NH농협증권 ASSET 통장!